

인심 넉넉한 돌산갓 본산지서 휴식과 여유를 맛보다



전남 여수 두문포 마을 전경. 두문포 마을은 비룡 2마리가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번잡하고 시끌벅적한 관광지화 달리 아담한 포구와 한적한 바다가 여유를 주는 마을이다.

비룡 2마리 포근하게 감싸 안은 순박한 포구마을 낙시대 드리우면 어디든지 포인트...어족도 풍성 간조때 길 열린 돌섬...비렁위 갯가길은 걷기 명소

일상의 소란을 피해 떠나고 싶을 때가 있다.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고 싶을 때가 있다.

전남 여수 '두문포 마을'은 휘황찬 없이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곳이다. 번잡하고 시끌벅적한 관광지와는 다르다. 아담한 포구, 한적한 바다는 사물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볼 수 있게 만든다. 쪽빛바다와 그럴싸한 해변이 없어도 나름 매력적이다.

국내 대표적인 관광도시인 여수 도심에서도 1시간은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두문포 마을은 마을 전체가 비룡 2마리가 감싸고 있는 형상이라고 한다. 임진왜란 때 남해에서 왜군이 쳐들어 왔을 때 죽포 주민들이 아산에 성을 쌓고 왜군과 싸웠다고 해 '두문포'라 불렀다.

그러다 1948년 죽포와 나뉘면서 죽포 마을을 지키는 곳이란 뜻에서 두문포라 부르게 됐다. 비룡에 둘러싸여 있듯 마을을 포근하게 둘러싼 산자락이 이유 모를 안정감을 준다. 산줄기를 따라 왜군을 막기 위해 당시 쌓았던 돌섬의 흔적들도 여전히 남아있다.

마을은 '수려함'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더 순박해보인다. 마을 포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웅장하게 들어선 '돌섬'이다. 마을 주민들은 이 돌섬을 '불무섬'이라고 부른다. 풀무의 주둥이를 닮았다고 붙여진 이름이란다.

재미있게도 이 불무섬은 물이 빠지는 간조 때는 절어서 들어갈 수 있게 그 길을 허락해준다. 해식작용으로 인해 섬 남쪽에는 커다란 용굴도 뚫려있다. 만조 때 물이 들어치면 마치 그 모양새가 거북이가 몸을 숨긴 등껍질과도 닮았다.

포구에서 바다를 등지고 바라보는 마을의 모습도 운치가 있다. 노랑과 파랑과, 빛에 바래 물이 빠진 알록달록한 담벼락과 지붕, 그 뒤로 푸르게 펼쳐진 산봉우리가 조화롭다.

여유와 사색을 찾아 떠난 여행에서 '낙시'와 '갯길'을 빼놓을 수 없는 여행이다. 두문포 마을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손맛'을 보기 쉬운 낚시 포인트로 입소문이 나있다. 봄이면 제철을 맞은 '불락'을 방파제와 갯바위에서도 쉽게 낚을 수 있다. 그만큼 마을 포구와 해안을 따라 서식

하는 불락이 많다는 뜻이다. 여기에 불무섬으로 건너가면 씨알이 굵은 감성돔도 제법 올라온다. 불무섬 주변은 수심이 깊고 낚시꾼들의 출입도 적어 손맛을 보기 최적의 장소라고 한다.

봄철이면 어김없이 갑오징어와 송어때가 찾아오고 여름으로 넘어갈 시기엔 서대도 건질 수 있다. 겨울엔 두문포 집집마다 손질해 말리고 있는 물메기 역시 유명하다. 마을 앞에 펼쳐지는 갯벌은 아담하고 물살도 얇아 때만 잘 맞으면 갯벌에 나가 조개도 캐고, 게도 잡을 수 있다.

마을 뒤편 교회 뒤로는 산자락과 연결된 입구가 있다. 여수 '갯가길 2코스'에 접어드는 입구다. 갯가길은 바다사람들이 굴이나 미역, 파래 등 해산물을 따라, 즉 '갯갯'하러 다니던 길을 뜻한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던 바닷가 마을 사람들이 걸던 그야말로 생의 길이다.

갯가길은 꾸밈이 없다. 생업을 위해 오가던 길이니 거칠면서도 투박함이 녹아있다. 물론,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과 장치는 갖춰져 있다.

원래 갯가길 2코스는 무술목을 출발해 월암-두문계-계동-두문포를 거쳐 방죽포 해수욕장에서 끝나는 총 5개 구간으로 이뤄져 있다. 전체 길이는 17km로, 5시간 정도 소요된다.

두문포에서 방죽포 해수욕장까지는 걸어서 약 1시간 남짓이다. 힘들지 않고 산책 삼아 걷기 좋다. 갯가를 따라, 비렁(벼

랑) 위를 따라 걷다 보면 자연스레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소나무와 어우러진 해수욕장과 수평선 위로 떨어지는 태양, 맑은 날이면 저 멀리 경남 남해의 바다도 눈에 들어온다.

아무리 좋은 여행도 먹는 것, 맛있는 게 없다면 허사다. 두문포 마을에는 식당이 딱 하나있다. 하나뿐인 식당이지만 알차다. '온누리네 횡집'은 주인장이 직접 배를 몰고나가 이각망 그물로 잡은 활어가 주메뉴다. 당연히 모두 자연산이다. 메뉴도 '사시미(회)', '매운탕', '해삼', '멍게'로 단순하다. 그날 그물에 걸린 생선에 따라 횡감도 달라진다.

낙지호롱부터 소라숙회, 생선구이, 여기에 지역 특산물로 명성이 자자한 돌산갓으로 직접 감치를 담가 맛깔스럽게 한상 차려놓는다. 큰칼 이름(온누리)을 걸고 장사하는 만큼 말반찬 하나에도 정성이 들어가 있다.

쉬기 위해,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해 떠난 여행지에서 오히려 피로감을 느낀 적이 있다. 사람들에게 치이고, 복직이는 여행지와 달리 여수 두문포 마을은 온전히 편하게 쉬다 올 수 있는 그런 여행지다. 던져놓은 낙시대와 세상을 붉게 물들이는 낙조, 바닷바람 불어오는 갯가길을 걷다 보면 일상과 마음의 소란스러움이 자연스레 떨어진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사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찾아오시는 길

- ▶ 승용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서해경부고속도로 → 천안논산고속도로 → 순천완주고속도로 → 엑스포대로 → 거북선대교 → 돌산읍 → 두문포마을
- ▶ 고속버스 KTX용산역 → 여수엑스포역(2시간 40분) → 여수엑스포역-L정류장까지 도보이동(2분) → 111버스 승차(49분 이동) → 두문포마을 정류장 하차
- ▶ 열차 KTX용산역 → 여수엑스포역(2시간 40분) → 여수엑스포역-L정류장까지 도보이동(2분) → 111버스 승차(49분 이동) → 두문포마을 정류장 하차

“제철 바다고기와 낙조가 마을 자랑거리 누구든지와 편안하게 쉬었다 가세요”

제용국 어촌계장

두문포 마을의 제용국(65) 어촌계장은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랐다. 시골이라는 게 다 그렇다. 마을사람들 모두 큰 욕심 없이 바닷일을 하고 특산물인 돌산갓도 키우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민들 모두 바쁘게 손을 놀리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그 속에 '여유로움'이 묻어 있다.

제용국 어촌계장은 “두문포 마을 역시 우리 주민들처럼 여유롭고 한적한 마을”이라며 “특별한 것, 딱히 볼 것이 없지만 그저 편히 쉬다갈 수 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말했다. 그가 꼽은 마을의 최고 자랑 역시 '여유'와 '편함'이다. 자신의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이 편하게 쉬었다가 돌아가는 것 말고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했다.

“타지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웃들도 있지만 세상살이가 점점 각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뻥뻥하고 바쁜 삶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사람들이 정말 꼭 쉬었다 갔으면 합니다.”

그는 또 마을의 자랑거리로 풍부한 바다고기를 꼽았다. 갯벌도 있고 불무섬 근처는 물도 깊어 사시사철 제철 생선이 끊이지 않고 찾아온다고 했다. 강태공들 사이에서 알려지지도 않아 유유자적 낚시대를 드리우기 최적의 장소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해질녘 떨어지는 낙조를 바라보는 것도 두문포 마을의 ‘배놓을 수 없는 관광포인트’라고 설명했다. 마을의 단 하나뿐인 음식점 역시 본인이 품질과



맛 모두 담보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우리 마을에는 4개의 펜션이 있는데 그 위치들 모두가 바다 위로 떨어지는 낙조를 바라보기 최적의 장소에 있어요. 마을이 작아 비록 식당은 하나 뿐이지만 특산물인 돌산갓김치도 아주 일품이죠. 더구나 주인이 직접 바다에 나가 건진 신선한 자연산 활어회 그 맛은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제용국 어촌계장은 “두문포 마을은 여수 최고 관광지로 꼽히는 향일암과도 가깝고 몽돌해변, 해양과학관도 인접해 있어 가족과 함께 찾아도 좋다”며 “일상의 피로를 잊고 진정한 휴식을 얻고 돌아갈 수 있게끔 주민들 모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마을 포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불무섬. 풀무의 주둥이를 닮아 이름이 붙여진 이 섬은 물이 빠지는 시간이면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섬 남쪽에는 용굴이 뚫려있으며, 주변 수심이 깊고 낚시꾼들의 출입도 적어 '손맛'을 보기 좋은 곳이다(왼쪽). 마을 주민들이 바다에 나갈 채비를 하며 바쁘게 손을 놀리고 있다.



마을 포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불무섬. 풀무의 주둥이를 닮아 이름이 붙여진 이 섬은 물이 빠지는 시간이면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섬 남쪽에는 용굴이 뚫려있으며, 주변 수심이 깊고 낚시꾼들의 출입도 적어 '손맛'을 보기 좋은 곳이다(왼쪽). 마을 주민들이 바다에 나갈 채비를 하며 바쁘게 손을 놀리고 있다.